# "글로벌 Top 100 대학 도약시킬 것"

## 양오봉 전북대 총장, "지역발전 연구소 설립 대학 재정 확대, 학생 취업·연구 경쟁력 강화"

양오봉 전북대학교 제19대 총장이 8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Top 100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제19대 총장이 8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16면〉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위기의 시대, 전북대학교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대학 가족들과 힘을 모으고, 지역 사회와 뜻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전북대학교를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Top 100' 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총장은 우리 앞길에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게 아니라며,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 입학지원이 입학정원보다 적은 역전현상은 이미 오래 전 일"이라며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대학들이 늘고 있다. 2024학년도 입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대학도 이러한 힘든 현실을 비켜갈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위기를 타개할 획기적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전북대학교를 학생들이 꼭 다니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

전공 간, 계열 간 융·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교육원'을 설립하고, 온·오프라인 수강 방식의 선택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세계 100대 대학 또는 국내 주요 거점대학들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취업지원 전문 부서의 신설과 예산 확대, 취업지원 단대별 취업라운지 신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 비율 50%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AI 선배'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취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공계는 물론 인문·사회계열 취업률 향상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등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성과형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학·석사 연계 과정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일제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 지원 규모도 전액 장학금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양 총장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올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재정 보증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자, 상담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교수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 지원과 제도 개선, 복지수준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교수님들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구기반 조성비와 논문 게재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학술적, 사회적, 실용적 및 산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연구년 총량제를 도입해 총 3년 내에 교수가 연구년 기간과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 열정이 높은 조교수와 부교수 기간인 최대 9년 동안 간접비의 20%를 실험실 운영비로 적립하고, 해외 학술대회 발표 경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제안서 및 발표자료 편집 지원을 통해 연구과제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종이 없는 스마트 행정시스템을 도입해 연구비 정산 처리 업무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양 총장은 지역과 상생하는 전북대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14개 시·군 발전을 견인하는 JBNU 지역연구원 설립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북대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이른바 RISE 사업을 비롯해 국립대학육성사업, 글로컬 대학사업 등의 굵직한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의 단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이미 연간 4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사업' 추진 대학에 선정돼 미래 수송기기 분야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 농생명·바이오 분야 등 지역 성장동력 산업 분야에서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100대 기업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전북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국내 굴지의 기업 유치에도 발벗고 나서겠다며, 현재 30%에 불과한 공공기관 지역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학 내에서의 각종 비위 행위나 일탈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사실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연구윤리감사실은 연구윤리 분야로만 한정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실에서는 연구윤리는 물론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살피겠다는 것.

양 총장은 "해외 명문대학들의 총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fund raising 즉, 대학 운영에 필요한 모금"이라며 "저도 우리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회계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1,500억원 규모의 연간 연구비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호원대 IoT 융합보안 SW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평가 '최우수'

호원대학교 IoT 융합보안 SW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이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이공계열 커플링사업 참여대학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운영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8일 사업단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컴퓨터정보보안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사업단에 참여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장실무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기업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영숙 사업단장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 배출 및 높은 취업률"이라며 "올해도 도내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8일 교육연수원에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예산업무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2023학년도 교육 학습공동체 공모 진행

### 도교육청, 교사연수회 · 교과연구회 등 892개 공동체 지원 선정 시 내달부터 12월까지 활동… 1팀당 최대 300만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학년도 교육 학습공동체' 공모에 나섰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학생·교사가 더불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해마다 교육 학습공동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동아리 방식을 확장해 교과연구회, 교사연수회,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으로 개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연수회 304개, 교과연구회 100개, 사제동행 488개 등 총 56개 분야에서 892개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교육 학습공동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각 팀당 150만~300만원이 지원된다.

연구 주제에 따라 학교급별 교원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연구회의 경우 연구 목적을 공유하는 15명 이상 교원, 연수회는 10명 내외 교원, 사제동행은 교사 1~2명과 10명 내외의 학생으로 구성된다. 다만, 교과 및 학생생활지도 역량 분산 방지를 위해 교원 1인당 2팀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신청은 도교육청 누리집→교육정보→교육학습공동체 순으로 접속해 사업별 공모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별로 교과 전문성과 연구회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해 4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교육과장은 "교육 학습공동체의 협력적 실천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는 혁신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생과 더불어 교원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문화 혁신을 위해 많은 교원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라이프드림, 우석대에 시제품 컵라면 기부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의 가족회사인 ㈜라이프드림이 본교에 시제품 컵라면 1,000개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문화관 5층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과 이승미 학생취업처장, 구성회 ㈜라이프드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시제품 가칭 '합격이라면'은 기능성 쌀인 가바쌀을 주원료로 제작됐다.

본격 출시에 앞서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 소속 바이오헬스 ICC와 학생취업처 생활관은 마케팅 계획 수립과 제품 시식회 등을 도왔다.

이종석 단장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족회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산업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드림은 교육부 주관 산학협력 EXPO 참여 및 LINC 3.0 가족기업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우석대학교 우수가족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예산업무 담당자 업무 적응력 향상

### 도교육청, 상반기 직무교육… 예산편성 실무 등 설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교육연수원에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예산업무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예산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담당자들의 업무 적응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걸쳐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예산편성 실무, 특별교부금 운용 요령, 재정투자사업 심사의 이해, 2023년 상반기 교특회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의 이해 등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방안 등을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필중 예산과장은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전북교육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지방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예산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익산교육지원청, 익산병원과 건강검진 업무 협약 체결

전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희)은 8일 익산병원 7층 회의실에서 관내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익산병원(병원장 신상훈)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관내 교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원활한 검진 서비스 지원, 외래 진료 연결 시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신속한 진료 서비스 제공, 종합건강검진 감면 혜택 등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주대, 케냐 나이로비 대학과 공동연구 중점 전개

### "아프리카 지역 환경 식량 · 인권문제 등 학술교류 시너지 효과 기대"

전주대학교는 최근 케냐 나이로비 대학교(University of Nairob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최근 케냐 나이로비 대학교(University of Nairob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교류, 공동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전주대 재활학과 신숙경 교수와 나이로비 대학교의 사회학, 사회복지학 & 아프리카 여성학과의 Nazioka 교수 간 학술 교류로 시작, 양 대학 간 지속적인 인적 및 학술 교류를 위한 공식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졌다.

나이로비 대학교를 방문한 신숙경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적자원 교류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 및 식량, 인권 문제 등 국제 학술 교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케냐 나이로비 대학교(University of Nairobi)는 1956년에 설립된 케냐 최대의 국립대학교로, 7개의 캠퍼스에 농업, 예술 & 사회과학, 환경 & 디자인, 경영, 교육, 엔지니어링, 법학, 건강과학, 과학 & 기술, 수의학 등 10개의 단과대학 62개 학과, 학생 수 6만여 명이 재학 중이다. /장은성 기자

## 원광대, 10일 전북특자도 세미나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새로운 전북, 함께하는 원광대'를 주제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를 10일 오후 2시 교내 숭산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원광대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전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원광대 익산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한 원광대 정책 세미나로 마련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